

RESEARCH ARTICL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dian pilgrimage experience of Buddhist practitioners: Focusing on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hon, Kangsuk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ociology, Joongang Sangh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인도 성지순례 참여 경험 탐색 연구: 불교수행자를 중심으로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Shon, Kangsuk (nie1206@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ilgrimage experiences of Buddhist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ian pilgrimage. The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what were the pilgrimage vows of Buddhist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ian pilgrimage? Second, what were the pilgrimage and reflections of Buddhist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ian pilgrimage? Third, what were the post-pilgrimage plans of Buddhist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ian pilgrimag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Buddhist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ian pilgrimage in March 2023 and analyzed using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15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pilgrimage experience in three areas: 'pilgrimage vows', 'pilgrimage and reflections', and 'post-pilgrimage plans for return'. First, in the 'Pilgrimage Vow' section of Buddhist practitioners participating in the Indian pilgrimage,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Vow to meet my inner self through pilgrimage', 'Vow to gain the power to walk along the Buddha's path', 'Vow to be altruistic', and 'Vow to revive Korean Buddhism'. Second, in the 'Pilgrimage and Reflection' section of Buddhist practitioners participating in the Indian pilgrimage, ten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categories of 'Thoughts and Feelings before the pilgrimage', 'Thoughts and Feelings during the pilgrimage', and 'Thoughts and Feelings after the pilgrimage'. Third, in the 'Plans for Return after the Pilgrimage' section of Buddhist practitioners participating in the Indian pilgrimage, 'Vow to practice the Dharma and preach the teachings' was deriv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meaning of the Indian pilgrimage to Buddhist practitioners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practicing Buddhist values.

Keywords: Indian Pilgrimage, Buddhist Practitioners,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PEN ACCESS

Citation: Shon, Kangsuk.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dian pilgrimage experience of Buddhist practitioners: Focusing on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5, 113-125.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5.35.8>

Received: December 03, 2025

Revised: December 17, 2025

Accepted: December 26, 2025

Copyright: © 2025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최근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심리정서적인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시코쿠 헨로미치,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리고 인도의 보드가야 등 성지순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지순례는 신성한 시간과 공간과의 만남으로,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일이다. 순례란 참회와 서원의 여행으로(김선근, 2013), 순례자들은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순례길에 나선다. 또한, 순례는 자신, 진실, 거룩함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는 여정이다(이호경, 안운경, 2022). 우혜란(2008)은 순례는 성스러운 장소 즉, 힘의 장소로의 여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생명, 근원, 치유로 회귀하는 종교적인 여행이라고 하였다. 순례를 통한 순례자와 성지와의 상호관계성은 순례자에게 걸음걸음에 특정한 화두를 던진다(정주연, 2022). 순례자들은 ‘걷기’를 통해 성스러운 공간에 새겨진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고 성인의 거룩한 삶의 이야기들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지혜를 전달한다(김웅철, 2023). 따라서, 성지순례가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호경, 안운경(2022)은 Van Genneep(2000)의 통과의례를 기반으로 순례의 단계를 분리(현실), 변환(비현실), 통합(현실)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과정이다.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단계이며 지금까지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환의 과정이다. 거룩한 장소를 걸으면서 만나는 평화롭고 낮은 장소, 사람들과의 조우는 순례의 공간적 표현이다. 또한,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그곳을 걷는 것은 순례의 시간적 표현이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의 단계이다. 순례자가 자신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순례자가 성지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며 이 과정은 삶의 기대와 희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위의 3단계는 순환한다. 즉, 순례는 하나의 정화과정으로 고행을 거처며 자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새롭게 탄생하고 통합된 세계로의 변환을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순례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 우선, 관광적인 측면에서 순례를 살펴보면, 고진현, 구원일(2019)이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여행자의 관광동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통해 도보여행자들은 심리적인 안정과 자기개발,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의 체험을 목적으로 걷기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순례는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승민(2017)은 2편의 영화를 통해 주인공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경험하는 치유의 과정을 전해주고 있다. 영화 <The Way>에서 죽은 아들의 유골을 품에 안고 아들 대신 순례를 떠난 아버지는 800km의 여정을 오로지 홀로 걸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죽은 아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면하게 된다. <나의 산티아고>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를 순례하면서 더위와 열악한 환경과 마주하고 매일 20-30km의 길을 걸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내면에서 치유의 순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차원이다. 김용표(2010)는 순례는 장소가 주는 거룩함, 복합적인 종교의례로서 정성과 노력이 결집된 신앙, 순례를 통한 더 깊은 종교체험을 유발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순례자가 순례의 과정에서 성지의 청정한 기운과의 합일을 통한 성스러움의 체험은 순례이후 회향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순례는 나와 나, 나와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변찬복, 2015). 또한, 순례는 자비의 실천을 습관화하는 행동변화를 일으키도록 돕고 있다(최선희, 2009). 실제로,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불교가 산중에서 거리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순례를 통해 불자들이 기도와 함께 항상 공양미를 보시하는 등과 같은 보시를 행하게 하고 있다. 걷기는 공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들의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김미영, 전상인, 2014). 이러한 순례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마침내 자기실현의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순례과정 중에 하게 됨으로써 인간존재가 갖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를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박승민, 2017).

인도불교 성지순례는 붓다의 열반과 함께 시작된다(염중섭, 2021). 인도불교의 4대 성지순례는 붓다가 태어나신 곳인 룸비니, 깨달음을 성취하신 곳인 부다가야, 법의 왕국을 건설하신 곳인 사르나트, 무여열반에 드신 곳인 쿠시나가르이다. 인도불교의 8대 성지는 초기의 4대 순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확장하여 사위성, 상카시아, 왕사성, 바이살리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인도의 8대 불교성지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정각, 그리고 열반에 얹힌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유성욱, 2012). 불자들은 성지순례를 통해 붓다의 출생, 깨달음, 최초의 설법, 그리고 무여열반의 과정을 이야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최근 이루어진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하루 25km를 걸어 43일동안 부처님의 이야기를 따라 1167km를 걷는 걷기수행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2월 11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기원정사에서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성지순례는 선업을 쌓기 위한 실천으로, 순례자들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에게 진실로 예경을 드릴 때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Bhatt, 2010). 상월결사 인도순례참여자들은 43일 동안 주로 텐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부처님의 행적을 따라 걸으면서 진실로 예경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Springgay(2011)는 걷기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공간을 체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간만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Middleton, 2010).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여

한 불교수행자들은 걸으면서 ‘부처님의 나라, 인도’라는 도시를 온전하게 보고 느끼고 냄새맡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성지순례의 관점이나 의미(이병욱, 2024, 혹은 불교 성지 순례지의 성립과 관련된 역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거나(염중섭, 2021; 유성욱, 2012), 성지순례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탐구하였다(김용표,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성지순례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를 대상으로 성지순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의 서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였다(Hill, 2011: 3-14; Hill et al., 2005: 196-205; 손강숙, 2014 재인용). 본 연구의 연구진은 인도 성지순례 경험이라는 연구 주제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 보다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참여자는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불교수행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또한 Hill(2011: 3-14)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연령, 출가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의 조건을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인도 성지순례 경험이 있는 불교수행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교수행자의 출가 기간에 따라 경험에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가 후 15년 이상인 참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참여자 모집과 선정과정

본 연구의 연구자는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스님의 추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스님을 통해 소개받은 후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 목적, 인터뷰 개요, 일정 조율 등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여 사전에 연구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후보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안내받음으로써 참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추천받은 참여자들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직접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확인시킨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신원이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연구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든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진행 중 정확한 전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이후에도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초 정보

사례번호	성별	연령	학력	출가 기간	참여 계기	도움 받고 싶은 부분
1	비구	48	대학원 이상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기타
2	비구	47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3	비구	53	대학원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심리정서
4	비구	57	대학교 졸업	3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5	비구	61	고등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기타
6	비구니	43	대학원 이상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7	비구	53	대학원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8	비구	57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님의 권유	심리정서
9	비구	60	대학원 이상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기타
10	비구	48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대인관계
11	비구	65	대학원 이상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12	비구	60	대학교 졸업	15년 이상 20년 미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심리정서
13	비구니	67	대학원 이상	5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기타
14	비구	52	대학원 이상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기타
15	비구	55	대학교 졸업	20년 이상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불교신행생활
평균 연령 55.07세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1) 면접질문지 구성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터뷰 질문지 초안을 검토하며,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질문을 받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고려하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인터뷰 질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세 개를 완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

연구문제 1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의 서원은 무엇이었는가?
연구문제 2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은 어떠한가?

2) 인터뷰 및 자료수집

인터뷰 및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먼저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소요되는 시간, 녹음 동의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심리 및 상담 관련 박사학위자가 외부 감수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분석 과정은 ① 개별 분석 단계, ② 개별 분석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 ③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하나의 사례를 축어록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후 연구자 각자가 영역을 설정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영역을 확정하였다. 나머지 사례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역을 구성한 후, 합의팀이 모여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각 사례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1차 감수를 받았다. 감수 후 연구자 간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감수 받았다. 합의팀은 감수자의 의견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Hill(2011: 3-14)에 따르면, CQR에서는 주제의 대표성을 빈도수로 결정하며, 이야기의 빈도는 단순한 숫자보다 질적 연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주의 빈도는 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드문’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은 모든 사례 또는 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를 의미하며, ‘전형적’은 사례의 절반 이상 혹은 ‘일반적’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동적’은 최소 두 사례 이상이 포함된 경우 혹은 ‘전형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드문’ 사례는 참여자가 15명일 경우 2~3명 정도만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III. 연구결과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를 대상으로 성지순례 경험을 탐색한 결과, ‘순례의 서원’, ‘순례와 반조’,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의 3개 영역에서 1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의 전체 요약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결과 전체 요약

영역	범주		사례 수
순례의 서원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		변동적(7)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		변동적(5)
	자리아타를 서원함		드문(2)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		변동적(4)
순례와 반조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이전의 순례 경험에 대해 생각함	드문(3)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낌	변동적(4)
		순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대함	변동적(7)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인도의 수행 환경을 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 성찰함	변동적(4)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남	드문(3)
		희열감과 감사함을 느낌	변동적(5)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드문(3)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	변동적(6)
		희열과 감사를 경험함	드문(2)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변동적(6)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		전형적(12)

1. 순례의 서원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 서원을 분석한 결과,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변동적)’,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변동적)’, ‘자리아타를 서원함(드문)’,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변동적)’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순례의 서원 분석 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순례의 서원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	변동적(7)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	변동적(5)
	자리이타를 서원함	드문(2)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	변동적(4)

1)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

“출가 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은 20년 어떻게 살지? 3년 전 사찰을 종단에 등록시켰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포교를 할지? 등등의 의미를 두고, 남은 시간 어떠한 수행자로 살지 정립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연구참여자 1>

“이번 순례가 제 인생에 있어서의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일해진 나의 생활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6>

“자신을 돌아보며, 출가 본연의 심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걸음 걸음에 번뇌를 쉬고자 하였습니다. 분별과 가치기준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7>

“매너리즘에 빠져 안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계기를 찾고자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8>

“출발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갖고 순례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9>

“나의 삶의 여행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2)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

“부처님께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전법하신 길을 제가 대중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저의 일생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처럼 전법하고자 하는 신행활동을 서원으로 세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며 나의 수행을 점검하고 부처님 같이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4>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도 순례길,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겠다는 원력이 간절했습니다.” <연구참여자 13>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를 정도로 훌륭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분처럼 되고 싶은 서원을 가졌습니다.” <연구참여자 1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부처님의 깨달음과 상황들을 느끼고 앞으로 나의 수행과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서원입니다.” <연구참여자 14>

3) 자리이타를 서원함

“지난 천리순례 삼사순례를 통해서 모든 대중의 전법의 원력과 실천 수행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동안 진정한 전법수행을 하고 있었는가?’하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순례를 통해서 아상의 나를 내려놓고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를 사부대중들에게 실천하면서 전법을 이어가야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5>

“순례기간 동안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나의 서원은 무엇인가?’를 묻고 나의 서원은 자리이타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리이타를 서원했습니다.” <연구참여자 9>

4)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

“이번 생애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일본일초라도 오래 남기를 바라는 원을 세웠습니다.” <연구참여자 3>

“우리 불교교단의 차원에서 재발심과 견고 움직이는 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을 세웠습니다.” <연구참여자 8>

“한국 불교의 중흥이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한국불교의 발전과 재부흥이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종단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부대중의 이고득락이 저의 서원입니다.” <연구참여자 15>

2. 순례와 반조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를 분석한 결과,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범주에서 10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에서 ‘이전의 순례 경험에 대해 생각함(드문)’,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낌(변동적)’, ‘순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대함(변동적)’이 도출되었다.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에서 ‘인도의 수행 환경을 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 성찰함(변동적)’,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남(드문)’, ‘희열감과 감사함을 느낌(변동적)’, ‘순례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드문)’이 도출되었다.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변동적)’, ‘희열과 감사를 경험함(드문)’,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변동적)’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순례와 반조 분석 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순례와 반조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이전의 순례 경험에 대해 생각함	드문(3)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낌	변동적(4)
		순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대함	변동적(7)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인도의 수행 환경을 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 성찰함	변동적(4)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남	드문(3)
		희열감과 감사함을 느낌	변동적(5)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드문(3)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	변동적(6)
		희열과 감사를 경험함	드문(2)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변동적(6)

1)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1) 이전의 순례 경험에 대해 생각함

“2022년, 2023년, 2번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순례 이전에는 대승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나, 43일 간의 체험으로 어느 정도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소임에 얽매임을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참여자 1>

“이전의 천리순례에서 대중과 함께 걸으면서 같이 걷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례 대중의 한 사람으로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5>

“2021년 동화사에서 봉은사, 2022년 삼보사찰, 2023년 순례를 통해서 걷는 동안, 묵언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반조가 가능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순례가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연구참여자 9>

(2)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낌

“막연하게 ‘순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체력이 떨어지면, 완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연구참여자 2>

“‘과연 내가 이 일정을 원만히 회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대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연구참여자 6>

“1167km라는 걷기 순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육체적 어려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과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걷는 것이므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렵듯이 해보았습니다.” <연구참여자 11>

(3) 순례를 의미 생각하며 기대함

“출가 본연의 심지가 희석되어 가고 있고 결연한 마음의 나태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이 나태함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7>

“순례 이전에는 나태, 안일,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순례를 통해 걸으면서 부처님을 만난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참여자 8>

“순례 이전에는 인도에서의 그 무엇인가를 통해 수행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9>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환희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오로지 인도순례를 참여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어떤 힘든 경계가 와도 순례에 대한 기대로 환희심이 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3>

“지금까지 바쁘고 열심히 살았으나, 조금은 방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다시 힘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순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연구참여자 14>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이지만 기대와 걱정으로 고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참가하는 특별하고 대단한 순례를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참석하고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을 특별하게 만나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점검해 보는 특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연구참여자 15>

2)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1) 인도의 수행 환경을 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 성찰함

“한국 승려들은 참 복 많이 받고 수행하고 있구나!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투정 부리지 않고, 힘들다 말하지 않고 살아가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구참여자 1>

“인도의 실제 상황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원력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지만 같이 걷는 스님들과 도반들을 보면서 다시 굳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3>

“순례 과정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을 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의 풍족함과 감사함을 잊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불교 성지를 지켜 준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의 승가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장에 마음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9>

“생각보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실감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난보다 인도 현지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석가모니의 후예들의 참혹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나의 수행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2)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남

“순례 과정 중 텐트를 치고 함께 공양하고 휴식을 취하고 몸이 피로할 때 인간이 가진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느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나와 남을 배려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5>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나의 생각들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싫다는 마음 보다는 일어난 일에 대한 관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연구참여자 12>

(3) 희열감과 감사함을 느낌

“처음에는 인도의 낯선 환경으로 인해 힘이 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순례 후에 그날 밑에서 쉬면서 도반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구참여자 2>

“부처님 나라에 가서 도보수행을 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걸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벽찬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순례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같이 있는 스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환희로웠고 나에게 대한 인정,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연구참여자 6>

“불편하고 지치고 힘든 중에서도 걷는 중 순간순간 산하대지의 향기와 사람들의 미소, 인사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풍경을 소환했고 항상 감동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8>

“영축산에 올라 법회를 할 때 삼세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의 법회였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원만하진 못했지만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마치 사형사제를 쟁기듯이 자비심으로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동이 두 배였습니다.” <연구참여자 13>

(4) 순례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출가 본연의 심지를 고취하고자 순례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순례를 통해서 신심과 원력이 고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참여자 7>

“육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행이 몸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연구참여자 14>

“부처님의 전법의 발자취를 밟으며, 나 자신의 초발심의 원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여정이 곧 수행의 길이며 전법의 활동임을 느꼈습니다.” <연구참여자 15>

3)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1)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

“인도 순례 이후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순례를 생각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도 항상 없다, 부족했다고 한 나를 돌아봅니다. 그동안의 게으름을 반성해봅니다. 꼬장꼬장한 성격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참여자 1>

“순례 이후에 마음이 가벼워졌고, 앞으로 포교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2>

“순례 이후 나 자신의 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인도순례를 회향하면서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부대중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숭선수범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디 서나 누구에게나 자비롭게 대하여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5>

“역경은 나를 키우는 영양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할 수 있는 인연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연구참여자 6>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순례 후에 부정적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2) 희열과 감사를 경험함

“도반들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꿈처럼 좋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8>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도 순례 성지에서의 고마움을 국내 그 나라 출신 노동자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태국 노동자의 심장암 수술지원, 미얀마 법회 지원, 스리랑카 노동자 병원비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순례에서 얻은 그 무엇을 지역 불교 발전에 쏟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9>

(3)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은 대원이 있었습니다. 회향식에 모인 사부대중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신심과 원력이 고취되는 것을 느낍니다.” <연구참여자 7>

“순례의 첫 단추였던 국내 순례부터 인도 순례까지 정말 잘 선택하였다는 기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순례를 통해 내 곁에 수많은 불보살이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힘든 시간이 와도 인도성지순례의 시간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사부대중께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13>

“생사를 뛰어넘는 수행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으면서 화합하고 구도의 열기에 숙연해지기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초발심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가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15>

3.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영역에서는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전형적)’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연구결과

영역	범주	사례 수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	전형적(12)

1)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받기보다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두루두루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1>

“순례를 통해서 얻은 체험을 포교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초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2>

“출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 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생각해봅니다. 이 땅에 불교가 조금 더 오래 남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순례에서 얻은 자신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수행으로 더욱 더 정진하고 세상에 회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 4>

“사부대중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였고, 더욱 나를 성숙시켰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종단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법의 초심을 잃지 않고 대중과 더욱 화합하고 정진하면서 전법활동에 매진하면서 회향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5>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구참여자 6>

“중생과 나 자신에 대한 전법, 전도를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건성 성불입니다.” <연구참여자 7>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불자들이 즐겁게 신행생활을 하도록 안내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즐거운 불교신행생활을 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9>

“가장 강렬했던 느낌의 두 곳은 보드가야와 쿠시나가라였습니다. 보드가야의 분출하는 에너지와 내면으로 차분해졌던 쿠시나가라는 나의 서원을 세우게 만들었고 부처님의 전법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춘다의 공양으로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운 노쇠한 육체를 이끌고, 걸어서 쿠시나가로 걸어오시고 열반에 드신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중생을 위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포교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참여자 10>

“괴로운 나를 넘어서 중생들에게 회향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보살이 되도록 중생들을 향해 작은 정성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포교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12>

“성지순례를 통해 자신을 더욱 잘 보게 되었고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성불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법하셨던 부처님의 자비 원력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전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전법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3>

“부처님께서는 2500여년 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전법을 위해 정진하셨고 노력하셨다는 것에서 부처님의 간절함과 지극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자리잡았습니다. 말 뿐만이 아닌 현실에서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1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를 대상으로 성지순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 서원’ 영역에서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 ‘자리아타를 서원함’,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성지순례를 통한 내면 탐색의 경우, 김선근(2013)의

연구에서 불교에서 순례는 내면을 향한 것으로 영혼의 순례야말로 참된 성지순례라고 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는 순례명상의 개념 정의 연구를 진행한 염중섭, 손강숙, 신방현, 문진건, 정소미(2023)의 연구에서 순례자들이 순례를 통해 명상하고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순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자리이타를 하기를 서원하는 마음, 그리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 영역에서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범주에서 10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이전의 순례 경험에 대해 생각함',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낌', '순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대함'이,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에서는 '인도의 수행 환경을 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 성찰함',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남', '희열감과 감사함을 느낌',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함', '희열과 감사를 경험함', '순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됨'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례 이전에 순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기대하는 정서를 함께 경험하였지만, 순례 과정 중 인도의 수행환경을 바라보며,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에서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며 지금 그 길 위에서 걸을 수 있음에 환희하고 감사한 정서를 느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면의 변화와 순례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 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영역에서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이 도출되었다. 연구문제3의 '성지 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에서 도출된 범주는 연구문제1, 연구문제2의 범주들과 달리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인도 성지순례의 서원과 경험은 다양하였으나, 결국 돌아올 때 마음 속에 품고 온 회향계획은 하나로 귀결된 것이다. 이는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인도 성지순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부처님의 삶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과 전법, 포교 등의 방법으로 실천하고자 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의 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삶의 쫓아 견고 걸으며, 부처님의 삶을 비추어보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함께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속한 현실로 돌아와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주로 신도들이었다. 신도들이 순례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생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염중섭, 손강숙, 신방현, 정소미, 문진건, 2023), 불교수행자들은 우선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특별하며 귀하다.

본 연구는 불교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불교수행자들에게 인도 성지순례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도 성지순례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지순례 종료 시점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지순례 과정의 경험들을 심도있게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가 후 15년 이상 불교수행자들의 경험만을 탐색하였다. 출가 기간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도 성지순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교의 다양한 성지를 대상으로 하여 순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를 대상으로 순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의 서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은 어떠한가?였다. 이를 위하여 2023년 3월 인도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수행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성지순례 경험에서 '순례의 서원', '순례와 반조', '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의 3개 영역에서 1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 서원' 영역에서 '순례를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나기를 서원함',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원력을 서원함', '자리이타를 서원함',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함'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순례와 반조' 영역에서 '순례 이전의 생각과 느낌', '순례 과정 중 생각과 느낌', '순례 이후의 생각과 느낌' 범주에서 10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셋째, 인도 성지순례 참여 불교수행자의 '성지 순례 이후의 회향 계획' 영역에서 '전법의 실천과 포교를 다짐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불교수행자들에게 인도 성지순례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불교적 가치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도 성지순례, 불교수행자,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참고문헌

- 김미영, 전상인 (2014). 오감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걷기. 국토계획, 49(2), 5-21.
- 김선근 (2013). '108 산사순례기도회'의 실행. 한국불교학[韓國佛敎學], 67, 239-268.
- 김용표 (2010). 세계(世界)의 중심상징(中心象徵)과 성지순례(聖地巡禮): 종교현상학적(宗敎現象學的) 접근. 한국불교학, 57, 27-62.
- 김응철 (2023). 불자에게 성지순례의 의미. 불교문화, <https://buddhistculture.co.kr/special/?bmode=view&idx=21446498> (2025. 3. 9. 확인).
- 박승민 (2017). 순례의 치유적 의미: 키미노 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6, 51-73.
- 변찬복 (2015). 도보여행 에세이에 나타는 실존적 진정성의 양상. 관광연구, 3, 151-177.
- 손강숙 (2014).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중섭 (2021). 인도불교의 성지순례 시작과 성지의 의미. 종학연구, 6, 5-38.
- 염중섭, 손강숙, 신방현, 문진건, 정소미 (2023). '순례명상'개념 정의를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와융합, 45(9), 705-718.
- 염중섭, 손강숙, 신방현, 정소미, 문진건 (2023). 순례명상자의 참여 특성에 따른 영성적 웰빙, 삶의질, 회복경험 지각 차이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15, 277-301.
- 우혜란 (2008). 동시대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종교학연구, 27, 35-66.
- 이호경, 안운경 (2022). 문학작품과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순례의 상징적 의미.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 4(2), 107-117.
- 정주연 (2022). 팔공산으로 이어진 평화방생순례: 걸음걸음에 화두 담아. 법보신문,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673> (2025. 3. 9. 확인).
- 최선희 (2009). 108산사 순례기도회 이끄는 혜자스님: 우리불교는 산중에서 거리로 세계로 나가야.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2100043> (2025. 3. 9. 확인).
- Bhatt, S. R. (2010). Pilgrimage in India. 한국불교학, 57, 5-25.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Middleton, J. (2010). Sense and the city: Exploring the embodied geographies of urban walking. Social Cultural Geography, 11(6), 575-596.
- Springgay, S. (2011). The Chinatown Foray as sensational pedagogy. Curriculum Inquiry, 41(5), 636-656.